

하코네 이궁과 온시하코네 공원

메이지에서 현대로 계승된 명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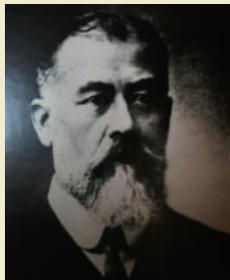
ONSHI-HAKONE PARK

하코네 이궁의 건설 계획

하코네 이궁의 건설 계획은 메이지 17년(1884년), 황실의 피서, 피병지로서 이곳에 이궁을 건설하자는 건의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이궁을 하코네 토오가시마에 설치할 것을 권유한 사람은 일본에 초빙되어 있던 독일의 의학자 벨츠였습니다. 벨츠는 예방의학의 중요성을 주장하여 하코네를 비롯한 일본 각지의 보양지, 온천지를 조사 및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참고로 하여 건설을 건의한 것은 당시 왕실장관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공원 내에는 하코네 온천과 인연이 있는 벨츠 박사를 기념하는 비석이 있습니다.

토오가시마 건축 책임자

이번 토오가시마 이궁 건축에 대해서는 건물의 위치, 규모, 경비 및 관계 제관청에 대한 연락을 제외하고 건축에 대한 모든 사업을 건축 책임자에 관해 편의를 도모하기로 한다.

메이지 17년 10월 25일 황실 장관 이토 히로부미(인)

이토 히로부미의 이궁 건설에 관한 문서 (발췌문)



하코네 이궁의 변천

메이지 19년(1886년), 하코네 이궁을 구성하는 서양관 및 일본관, 기타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약 30만 엔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당시의 국가예상 세출 총액은 약 8천만 엔).

그러나 다이쇼 12년(1923년)의 관동대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양관은 그후 해체되었으며, 일본관도 약 절반 규모로 축소되었습니다. 더구나 쇼와 5년(1930년)의 북이즈 지진으로 일본관은 일부를 남기고 소실되어 준공 당시의 약 7분의 1만 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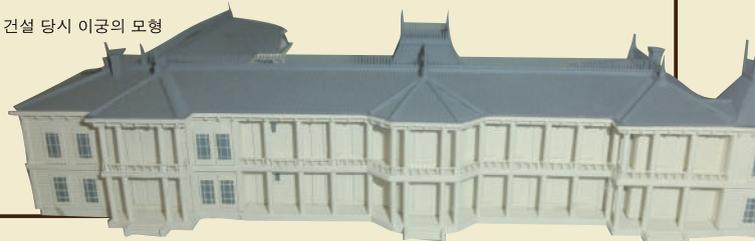
쇼와 20년(1945년)에는 가나가와현에 하사되어 다음해부터 “온시하코네 공원”으로 일반에 공개되었으며, 주차장과 전망광장 등, 공원의 정비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북이즈 지진에 의한 일본관 피해 모습

헤이세이 25년(2013년)에는 근대조원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점이 평가되어 “국가등록기념물(명승지 관계)”로 등록되었습니다.

건설 당시 이궁의 모형





하코네 이궁의 내부 모습

서양관은 아시노호수에 면하여 발코니가 달린 여좌소 및 큰 식당, 살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현관 중앙부에는 큰 방이 있어 융단이 깔리고 상들리에와 거울이 장식되어 내빈 접대용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일본관은 정원을 둘러싼 회랑식으로 이곳도 호수에 면하여 여좌소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여좌소...귀빈들의 거처



서양관 내부



일본관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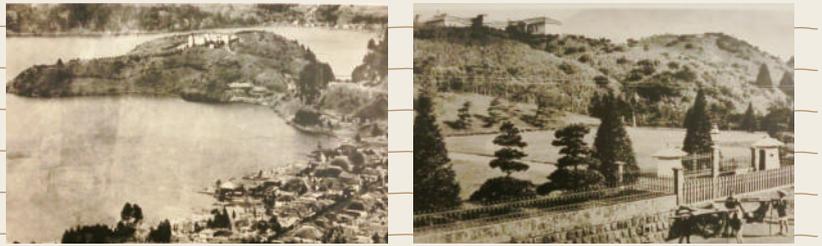
Sanjo Gate and the Occidental Hall

하코네를 방문한 귀빈

하코네 이궁은 황실의 피서와 보양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내빈을 대접하는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이쇼 11년(1922년)에 방일한 영국의 황태자 에드워드 전하는 하코네를 오랫동안 즐겼다고 합니다.



그림엽서로 보는 하코네 이궁



하코네주쿠와 하코네 이궁의 풍경 도카이도에서 본 하코네 이궁(현재의 주차장)

지정관리자/(공익재단법인) 가나가와현 공원협회, (주) 랜드 플라라
 현립 온시하코네 공원 관리사무국(호반전망대 내)
 TEL.0460-83-7484 아시가라시모군 하코네마치 모토하코네 171
 가나가와현 현서 토목사무국오다와라 토목센터
 도로도시과
 TEL.0465-34-4141 (대표전화)오다와라시 히가시초 5-2-58